

단임교사 여러분 환영합니다!!

학생회는 단위학교의 학생 자치기구로서 그 구성과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학생회는 학생들이 구성원이며 주인인 조직이다. 그러나 아직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나서기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러한 조건을 마련해 주는 일에 교사와 학교장, 학부모가 적극 나서야 하며,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우리 교사가 과거 제대로 배우고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하려 한다는 데서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소아를 버리고 대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자각하고, 반 인권의 역사를 인간 존중의 역사로 바꾸려는 원대한 꿈의 실현이 이제 시작되려는가 보다.



학생과 더불어 21세기 교육을 열어갈 학생생활 자료집

학생복지와 자치활동 활성화

청소년의 문화 특성과 가출 문제

두레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학생 자율 조회·종례 운영을 통한
학급 자치와 그 가능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생활국
학생생활연구실천협의회

학생과 더불어 21세기 교육을 열어갈

학생생활 자료집

학생복지와 자치활동 활성화

I. 들어가며 / 3

II. 학생 인권이란 무엇인가? / 5

III. 학교에서의 인권 - 인권적 배경 / 8

1. 점수, 성적 경쟁, 입시 경쟁에 묻혀진 인권 / 8
2. 아이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법 - 간섭과 통제 / 9
3. 기본 복지 시설의 부족 - 환경이 성격을 낳는다? / 11
4. 학생자치의 부재 / 12

IV. 학생인권의 신장을 위한 개선 방향과 대안 / 13

1. 교사·학생·학부모의 인권 의식의 제고 / 13
2. 학생 복지를 위한 재정 투자의 확대 / 15
3. 인권 교육의 강화 / 16
4. 학생자치의 보장 / 17
5. 학급 자치의 활성화 / 18
6. 민주적 학생회 구성과 운영 / 19

V. 맺으며 / 21

청소년의 문화 특성과 가출 문제

1. 청소년 문화의 특징 / 23
2. 가출에 대한 연구 / 26
3. 교사들이여 반성하자 / 29

두레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1. 취미별 두레란? / 32
2. 두레로 운영하는 학급 운영 / 33
3. 구체적인 운영방법 / 34
4. 두레 구성에서 유의할 몇 가지 / 35
5. 그래도 학급운영은 계속된다 / 37
6.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공동체의 실현을 위하여 / 40

학생 자율 조회·종례 운영을 통한 학급 자치와 그 가능성

- 중1 학습운영, 무엇을 중심으로 잡을 것인가? / 41
- 모듬을 통한 토론 집단 만들기 / 41
- 조례(朝禮)라고 안하고 조회(朝會)라고 하는 이유 / 42
- 스스로 운영하는 친밀감을 주는 조회 / 42
- 명상으로 마무리하는 하루 - 종례 / 45
- 우리 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 45
- 회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 46

학생복지와 자치활동 활성화

전교조 학생생활국장 현 원 일

I. 들어가며

학생은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청소년을 일컫는 말이다. 세계 어느 나라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은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과 함께 신체적 약점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의 권리가 선언적으로나마 법률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넘어서지 못할 때, 늘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법이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우리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식민지 시대와 군사정권 시절의 반인권적인 역사적 배경 속에서, 민주주의 발전이 지체되어 왔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약자에 대한 권리 보호 의식이 싹 트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한편 경제 개발과 국가 부흥이라는 신화의 이면에는 개인의 인권, 특히 약자의 인권과 사회적 정의보다 인간적 경쟁과 힘의 논리가 우위를 점하여 사회 구조와 개인의 의식을 지배해 왔다. 남녀노소의 차이, 지식과 힘의 우열, 신체적 차이 같은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개인주의와 물질 중심의 작동 원리가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을 사로잡아 왔다.

교육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부조리를 극복하고 바람직하고 조화로운 인간관계의 질서와 공동체를 건설할 '사람'들을 기르는 데 우

선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교육이 단순히 사회 각 분야의 일에 필요한 부품으로서의 인간을 생산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이 각박하고 비인간적인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과 지위를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한다. 학교는 이러한 수요자들의 요구에 충실히 복무해야 하고, 재정부자가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양적 교육에서 수치적 경쟁을 벌이게 된다. 대학이나 정부와 기업 등에서의 선발 기준은 지필 고사의 점수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좋은 교육은 결국 좋은 점수로 결론나는 것이고, 시험에서의 좋은 점수만이 상대적으로 좋은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인간 개개인의 존엄과 서로 차이가 있는 개인이 조화를 이루어가며 정의로운 공동체를 건설해간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인권이라는 것은, 사회정의 곧 '올바름'에 대한 가치 인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 갈 수 있는 비판력과 행동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정과 사회, 학교의 교육은 정직과 정의보다는 편법과 요령을 통한 출세의 처세술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며,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앞서 현실의 생존 논리를 터득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아연해질 때가 있다. 아이들은 순수함을 너무 빨리 잃어버리거나 포기하고 애늬은이가 되어 버린다. 이들 나이의 특성인 건강한 저항 정신은 왜곡되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반항과 이탈로 나타나는 것이다.

인권이라는 것이 일부 정권에 저항하는 정치적 인사들이나 대학생들, 혹은 절거민이나 장애인들에게만 해당되고, 이것이 일반 시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큰 것을 위해서는 작은 것으로부터 오는 고통쯤은 감내해야 한다는 왜곡된 개발 논리에 이르기까지 비민주적 사회문화 속에 배태된 인권에 대한 무지와 편견.

무관심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기본적 가치 인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태도와 인식이 결여된 사회·문화적 맥락으로부터 근본적인 인권부재의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권리의식과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분노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인권의 진전을 가로막는 요소들과 싸우고 비인권적 상황들을 극복할 때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복지적 삶을 살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밑바탕으로 인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비인권적 상황에 대한 대중적 처방보다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발전과 이를 가로막아 왔던 제도적·법적 차원의 개선이 서로 맞물리면서 인권적 현실은 개선될 것이다.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인 개인의 존엄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가정과 학교, 사회 각 분야에서 인간의 소중함이 엿보이는 사회는 결국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인격적 주체들로 서로가 사회 구성원들을 인식하는 사회일 것이다. 인권 문제가 여타의 집단 이기주의와 다른 점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사회를 정의롭고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본 철학이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II. 학생 인권이란 무엇인가?

학생 인권이란 학생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말한다. 이 때 특수한 지위와 신분이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다는 의미 외에도, 학교에는 비록 다니고 있지 않을지라도 성인이 아닌 연령의 어린이·청소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도 있다.

물론 청소년권·아동권의 하위개념으로 학생권이라는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학교에 적을 둔 학생에 그 대상이 국한될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같은 나이 또래에 학교를 다니지 않음으로 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제약받거나 법률 등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자칫 '학생 인권' 하게 되면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인권 침해 문제로 폭이 좁아질 우려가 있다. 이 경우에도 학교 제도라는 사회 제도와와 같등과 그 제도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기는 교사와 학생과의 같등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가정이나 기타) 인권 침해나 비인권적 상황까지 연관지어 폭넓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나아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어린이들, 장애아, 여성인 학생이나 청소년, 나이 어린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인권 부재의 사회구조 등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 인권을 바라보게 될 때, 학생인권에 대한 근본적이고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학부모로서의 권리나 교사로서의 권리와 그것이 충돌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과 충돌의 요소는 각 집단의 사회적 서열과 관련된 억압 구조와 문화로부터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고, 개인간의 갈등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산물이며 사회구조적 원인이 갈등의 주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인권 침해 사례가 교사에 대한 처벌 중심으로 귀결되어서는 근본적 해결을 가져오기 어려우며, 교사 집단의 감정을 자극하고 반발을 살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학생들은 학부모 특히 교사들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교사들은 잊지 말아야 하며, 어쨌든 사회적 억압 구조의 중간 위치에서 본의 아니게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

이 교사의 위치임을 자각하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형성된 일부 교사들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는 것은 차츰 없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교육의 수혜자이고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다. 이들의 현재 삶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세계로 열려지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다. 학생들을 기존 사회에 쉽게 적응시키고 길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에서 남는 것은 통제와 훈육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칙 위반자나 수업 태도가 불량한 자, 예의가 없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은 매우 당연한 것이며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이 된다. 교사는 물론 다수의 학부모들이 이러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미 학생들의 기본권은 태생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사회·문화적 산물이다.

학생 인권은 불확실한 미래를 학교에 저장잡히고 졸업할 때까지는 인권이니 하는 따위의 골치 아픈 문제보다 현실적으로 성적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인 조건 속에서, 또 그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는 개선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빈약한 구조 속에서, 교육의 장인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인데, 유독 학교에서만 학생인권이 강조되기도 힘든 노릇이다.

학생들이 나이가 어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 있지만 학생인권의 주체는 학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모두 함께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 속에서 학생인권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들을 하나씩 극복하려는 각자의 주체적 노력 속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신장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의 인권을 바라보는 사회적 태도의 변화와 제도적·법적 변화가 학생인권은 물론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 인권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Ⅲ. 학교에서의 인권 - 인권적 배경

1. 점수, 성적 경쟁, 입시 경쟁에 묻혀진 인권

앞에서 잠깐 언급되었듯이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은 성적 경쟁의 노예적 상태에 있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는 전장을 방불케 하는 과열 입시경쟁의 장으로 변한 지 오래되었다. 학교에서 전인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성적 경쟁만이 있을 뿐이다.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학생들이 부모나 교사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체벌을 감수해야만 한다. 어려운 수업, 흥미 없는 수업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은 늘 교사들의 타격 대상이며, 다른 아이들의 놀림감이 된다. 가정에서도 성적이 좋은 다른 형제들과 늘 비교되는 비참한 상황의 연속이다.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은 학생회의 임원이 될 수도 없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부딪히는 비인권적 상황에 대해 토론하는 문화도 없고,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학생들의 복지나 기본적인 요구를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학급회와 학생회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다. 학급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은, 일반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만큼은 아닐지라도 각각의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토론식 수업도 입시의 방편으로 전락하거나 형식화될 개연성이 높으며, 생활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고 옳지 않은 일들이 민주주의의

일반적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권이란 생활 속에서 자신의 존엄과 타인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인간답게 살려는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싹트고 자라나는 것이다. 성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시각이 광배한 사회에서 인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숨길 공간은 없다.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은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교육관에 그대로 적용되어 교육다운 교육은 현실 속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합법성을 얻은 학내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자체의 비인간성은 차치하고라도, 원하지 않는 수업과 자습이 강요되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 침해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단위학교 차원에서 보충·자율학습을 없앨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보충·자율학습에 반대하는 다수의 교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충·자율학습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교사는 무엇이 옳은 것이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2. 아이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법 - 간섭과 통제

어린이, 여성, 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릇된 사랑법과 보호 의식을 낳는다. 어른들이 볼 때 마냥 어려 보이기만 하는 아이들도 결국은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 스스로 개척하고 책임져야 할 인격적 주체이다. 전통적으로 '어린것이 무얼 안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라든지, 아이들은 엄하게 키워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자칫 아이들을 비주체적이고 의존적이며 눈치 보는 어른들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어른들은 자주 잊는 것 같다. 한편 부모들의 이기적인 자식 사랑법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어른들을 양산한다. 이러한 양극단을 오고 가며 아이들은 맹목적 사랑과 폭력적 권위주의에 길들여진다. 이러한 아이들이 복지시설이 낙후한 양적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자신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싸움은 참으로 치열하다. 교실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와 짝이 되기 위해서 규칙을 어기고 질서를 훼손하거나, 위압적 행동이나 폭력까지 동원하기도 한다.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나 약자에 대한 해고지, 절도와 금품갈취, 집단폭행..., 정의가 없는 교실에서 이러한 일들은 언제고 일어날 수 있다. 교사가 경찰 노릇을 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또 교사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방식이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이라면 문제의 일시적 해결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교육적이고 인권적일 수는 없다. 또 그렇다고 이러한 일들을 묵인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이것이 교사의 현실적 딜레마인 것이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자각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지혜를 모아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훈련해 오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그래서 결국 다수의 교사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터지는 사건을 효과적으로 손쉽게 해결하는 방식을 찾게 되는 것이다. 지나친 체벌과 인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물론 사랑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힘겨운 노력들이 값지고 소중한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겠으나, '아이들이 교사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왔을'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이 점점 먹혀 들어가기 힘든 것이 현실임을 느낄 때, 교사는 자신이 교사임을 원망하고 후회하기도 한다. 학교교육은 사회적 산물이

나 교사의 교육관, 교육 방식, 또는 사회적 인습이나 제도적 관행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가정에서 가르칠 수 없는 학생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학부모의 기대는 지나친 기대이며 그것은 교사의 약역으로도, 천사 같은 사랑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는 인식해야 한다. 제 속으로 낳은 자식 하나 어찌지 못하는 우리가 사오십 명 혹은 그 이상의 아이들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교사의 사랑과 헌신에도 한계가 있으며 아무리 좋은 교육 철학과 교육관이 있다 하더라도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과 학부모의 이기주의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교육 재정 투자가 확대되어 과밀학급이 해소되고 교사들의 수업시수도 줄어들고,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통제, 이로부터 벗어날지는 마찰과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3. 기본 복지 시설의 부족 - 환경이 성격을 낳는다?

학생들은 생활의 절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낸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인문계 고등학교는 물론 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함에도 문화적 여건이나 휴식하고 여가를 보낼 만한 공간이나 시설이 거의 없다. 한창 식욕이 왕성한 나이에 번번히 먹을 것도 없는 매점에서 빵을 사들고 앉아서 먹을 만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 물론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쉬는 시간 10분 동안 빵 하나를 먹으려고 5층에서 쏜살같이 달려 나오면 이미 빵을 먹으려는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다. 순서를 지켜 빵을 사서 한 입 베어 물면 수업 시작 종이 울린다. 그러니 빵 한 번 인간답게 먹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황금 같은 점심시간 50분도 마땅히 쉬거나 놀 공간을 찾기가 힘들다. 축구나 농구와 같은 공놀이

를 좀 하려 해도 비좁은 운동장에서 자리를 차지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저학년들은 농구 한 번 제대로 해보기가 어렵다. 쉬고 놀고 먹기 위한 경쟁 또한 치열할 수밖에 없다. 자연 교실과 복도가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실에서 뛰고 노는 것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발되면 아담맞기 일쑤다.

방과 후에도 선진국의 아이들처럼 자기들의 방을 가지고 있는 동아리가 몇 안된다. 아이들이 방과 후 취미 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하고 싶어도 공간과 시설이 없다. 마치 교도소나 군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 아이들은 거칠어지고 자기의 공간을 차지한 아이들이 미워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터득하는 것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는 요령과 학교에 대한 반감뿐이다.

4. 학생자치의 부재

학교에서의 인권 부재 현상은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단순해 제거하기란 물론 힘들 것이다. 따라서 구조적 원인을 해결해 가는 과정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주요한 교육적 원리가 학급회와 학생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 자치활동이다. 학생 자치활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몸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며, 문화적 교류와 의사소통의 장이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보면 기초적 의사소통의 장이 형식화되어 있거나 그 활동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에 근본 원인이 있다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자치능력에 대한 불신과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 상실의 불안감이 더 큰 원인이다.

학생회 직선제를 반대하거나 시행 상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들어 다시 간선제로 돌리려고 하는 발상이나, 학급 반장이나 학생회 임원

후보 자격에 성적 제한을 두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에서도 학생자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학교 운영의 책임자인 교장을 비롯한 교감 등 일부 교사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상당수 학부모들의 생각이기도 하며,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큰 관심조차 없다. 학생을 삶의 주제로 인식하고 이들이 민주사회의 주인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학생 자치 활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거나, 귀찮아하거나 혹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학생자치활동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적인 것이다.

IV. 학생인권의 신장을 위한 개선 방향과 대안

1. 교사·학생·학부모의 인권 의식의 제고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교사·학생·학부모의 인권 의식이 높아질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 제도의 개혁과 출세지향의 이기주의, 가족주의와 연고주의 등 사회적 인습의 타파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소한 헌법에 보장된 개개인의 권리가 지켜지려면 권리의 주체들이 기본권에 대해 철저히 인식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저항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자신이나 내 자녀의 권리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의식은 약자 혹은 소수에 대한 고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권리의 주장에는 상대방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힘이 있고 다수인 집단이나 개인의 권리 주장은 자칫 힘없는 소수에게는 치명적인 권리

의 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권리 침해에 대해 같은 교사로서 학생 인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학부모의 경우도 자녀에 대한 보복이나 불이익 등을 고려한 나머지 그냥 지나치거나 우회적인 방법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사나 부모가 학생의 인권을 당당히 주장할 때,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는 것이며 훌륭한 교육적 경험이 되는 것이다.

인권 의식은 인권침해에 저항하는 실천의 과정에서 길러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왜 우리 사회는 인권 의식이 약한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철저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의 역사와 우리 사회의 인권의 역사, 정치·사회·문화·경제·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광범한 물질주의적 가치관 등 우리 사회의 철학과 우리 자신의 철학에 대해서도 돌아보아야 한다. 사회적·역사적 배경 속에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그 뿌리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반복되는 인권 침해 사례는 줄어들 것이며 인권에 대한 논의의 수준과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직까지도 학교운영에서 교사·학생·학부모에게 전체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는 학교장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빼 놓을 수 없다. 물론 학교장도 교육청이나 교육부로부터 자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교장의 인권 의식이 약한 것은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인권의식이 약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출세지향의 이기적인 경쟁 교육과 양적 교육이라는 한계에서 연유하는 것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도 변하고 있다. 고여 있는 물이 흐르려고 하고 있다. 부끄럽게도 해방 이후 인권 탄압국의 오명이 지워질 날이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늘 사회적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인권에 대한 논의가 복권되어 오늘과 같이 학생 인권에 대한 실천적 논의의 단초를 교육의 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들이 모여서 할 수 있다는 것

만 해도 변화는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교사·학생·학부모의 인권 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힘있는 존재인 학교장의 인식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실제로 일 년 전까지만 해도 교사는 '학교장의 명에 따라' 교육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억압하는 분위기는 학교장의 학교운영관, 학생관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2. 학생 복지를 위한 재정 투자의 확대

인권 의식도 의식이라니와 기본적인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적 상황이야말로 반인권적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사회로부터 기본적인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인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복지적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교육 재정의 부족과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등이 주원인이다.

학생 복지에 대한 투자의 수치는 결국 학생 인권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학생들도 자신들의 복지를 위하여 싸워야 하겠지만, 학부모는 삼 년만 버티면 된다는 소아적 생각에서 벗어나 내 자식만이 아닌 우리 자식들, 우리의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보건·위생 시설과 문화적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교사들이나 학교장은 학교 재정 투자의 우선 순위에서 기본 학생 복지를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 사물함의 설치나 매점과 식당의 정상적인 운영 등 기본적인 복지 시설도 갖추지 못한 조건에서 멀티미디어 교육이니 정보화 교육이니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쓰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

를 좀 더 신중히, 인권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휴식 공간이나, 체육관 시설, 동아리방, 그 밖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과 공간들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더라도 당장 무거운 책가방과 인간답게 먹을 수 있는 매점과 식당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3. 인권 교육의 강화

교사·학생·학부모는 물론 학교장과 교육 관련 기관의 책임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인권교육이 교육과정으로 되고 교과서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는 데서 인권교육이 끝난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에게 어려운 교과목 하나 더 늘려주는 모양이 될 수도 있다.

교사 교육은 인권 관련 민간 단체의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학생 학부모와 함께 이러한 단체들의 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한편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 보는 것도 훌륭한 인권교육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체벌'에 공청회를 열어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각자의 입장을 피력하고 토론한다든지, 장애인과 함께 생활해 보기 등등의 체험 활동을 해 보고, 학교로 돌아와 경험을 교류하는 프로그램 등이 그런 것들이 될 것이다. 사회과, 도덕과, 국어과, 미술과 등등의 교과서의 내용 중에 예화나 예시 그림 등을 많이 실어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도 변

화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부모의 인권 의식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4. 학생자치의 보장

학생들의 인권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자각과 권리 찾기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누가 가져다주기 이전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나 학부모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어차피 제 삼자인 것이다. 학생 인권은 학생 시절 또는 학생 신분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 신장은 어른들의 권리 신장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불행히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도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교사 체벌이나 용의복장 문제와 같은 것에 대한 저항으로 출발한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폭넓은 시각으로 인권을 바라보고 공부할 수 있는 경험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지금 우리의 교육은 이러한 경험을 거의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오직 비인권적 상황에 대한 체험과 학교 교육에 대한 반감만을 심어주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그저 공부나 하면서 집에서 학교로 왔다 갔다 하는, 자유와 권리가 유보된 로봇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물론 학부모나 교사들 탓만도 아니요, 더구나 학생들을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인식을 학생들 자신도 해야 하며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치 기구를 통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학생들의 자치 기구가 유

명무실화되어, 학생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민주적 학생 자치 회의 기능이 마비된 데다 학급 활동이 축소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없는 현실이다.

인권 의식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가 되는 요소이며, 통제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에서는 뿌리내리지 못한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인권교육의 훌륭한 체험의 장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인권교육의 첫걸음이며, 학생 인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5. 학급 자치의 활성화

학생들의 기본 생활 단위인 학급에서의 자치는 학생 자치의 기본 틀이다. 학급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집단 활동과 학급 행사가 활성화되어 학생 문화와 자치가 자리잡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학생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지방 자치의 원리와 흡사하다. 학급은 학생들이 생활과 문화를 교류하고 자치를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실험장이기도 하다.

인권에 대한 교육과 훈련 역시 학급이라는 기본 단위의 다양한 자치 활동을 통해 가능한 방법이 얼마든지 모색될 수 있다. 학급회와 학급재관, 집단상담과 심성훈련, 모둠일기와 짝편지, 학급야영, 글쓰기와 주제토론 등의 활동이 인권 교육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잘 조직된다면 바람직한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근간으로 각 교과목의 수업 활동과도 연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글쓰기나 주제 토론 같은 것은 국어와 사회, 도덕, 윤리 등 관련 교과목 시간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방식이며, 학급 자치 활동이 활

발히 이루어지게 되면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이 갖출 수도 있다. 학급집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되고, 협동과 타인에 대한 배려, 자기 존중 등을 배우게 된다. 이는 인권 의식 형성에 기초적 요소이다.

한편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은 물론 교사나 학부모, 학교장이나 교육 행정 관료들, 교육학자들에게 중요한 임상적 자료와 풍부한 교육적 상상력을 제공하기도 할 것이다.

다만 7차 교육 과정의 내용이나 교육 개혁 과제의 추진 과정에서 학급단위의 역할과 위상이 축소되는 역현상을 보면서 매우 답답함을 느낀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기존의 행정 부서를 그대로 둔 채 교과별 부서 체계로 학교 행정부서 체계를 개편한 것은 학급의 역동성과 중요성을 간과한 중대한 오류이다.

선진국처럼 학교 교육 체제가 개인 중심, 서클(동아리) 중심으로 완전히 개편되지 않는 한, 학급의 교육적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며, 우리와 같이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문화에 훈련되지 않은 학생들의 조건 속에서 학급 자치의 기능은 오히려 더 살려져야 한다. 이것은 전체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과 학교 자치의 뿌리로서 학급 자치를 보는 관점인 것이다.

6. 민주적 학생회 구성과 운영

학생회는 단위학교의 학생 자치기구로서 그 구성과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학생회는 학생들이 구성원이며 주인인 조직이다. 그러나 아직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나서기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러한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일에 교사와 학교장, 학부모가 적극 나서야 하며,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여기서는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완화 방안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회 임원의 후보 자격제한이 철폐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이 철폐된 학교는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학급 반장 등 학생회 임원 후보 자격에 성적 제한을 두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회는 물론 학급회와 동아리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고, 적절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급회의 시간이 다른 시간으로 전용되어서는 안된다. 동아리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취미·학예 등의 동아리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생회장단 선거의 직선제와 선거의 민주적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선거가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활기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짧은 선거 운동 기간과 별도의 시간을 주지 않고, 학급별로 후보를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선거는 활기가 없고 참여와 관심도 저조할 수밖에 없다. 당선자의 선거 공약도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의 대표가 학생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

다섯째, 학생회는 학교 예산·결산의 심의에 참여하고 학사 일정 등 주요한 학교 운영상의 계획을 심의하는 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V. 맺으며

모든 권리의 이면에는 의무가 있는 법이다. 학생들은 권리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의무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자칫 권리의 주장이 타인의 권리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주장하지는 않을까 혹 우려하는 어른들도 있을 것이다. 아직 미숙하여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모든 권리의 주체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권리 주장이 더 설득력을 지니는 것이 현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모든 권리에는 상대방이 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기관이나 단체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다.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판단 그리고 현실적 배려 같은 것들 또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는 데서 빼놓아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이다.

어느 나라나 헌법과 법률이 있다. 헌법과 법률은 대개는 훌륭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법의 해석과 적용 상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누구 편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현실적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인권에 인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학생 인권은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약자의 권리로서 논의되는 것이다. 학교가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구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학생 인권이 주목받는 것이다. 물론 군대나 교도소의 인권도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인권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 문제가 자칫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의 이해가 얽혀서 본질을 벗어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학생 인권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와 개개인의 행복도를 측정하는 잣대이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향한 사회 구성원들의 실천의 표현이다.

물론 우리가 과거 제대로 배우고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하려 한다는 데서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소아를 버리고 대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자각하고, 반 인권의 역사를 인간 존중의 역사로 바꾸려는 원대한 꿈의 실현이 이제 시작되려가 보다.



청소년의 문화 특성과 가출 문제

광주 송신공고 김 록 성

1. 청소년 문화의 특징

80년을 살아온 청소년은 증폭된 민주적 분위기를 경험하였다. 사회 중심은 가치관이 개인 중심으로, 권위 중심에서 평등주의로 변화했다. 이 과정에서 지배적이었던 전통적인 윤리 의식조차 점차 약화되었다. 인내, 절약, 침묵, 순종과 복종의 가치나 출세, 엘리트 주의적 가치관은 무너지고 있다.

학생들은 이런 영향 속에서, 현실에서의 자기만족적 쾌락과 행복을 강하게 추구하는 현실 만족적 생활관과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자기 표현 중심주의 행동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또래 집단의 문화에 동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1) 즐김과 소비

첫 특징은 즐김과 소비 문화이다. 솔직한 표현을 즐긴다. 삶에 대한 감각을 서로 교환한다. 경제 성장과 물질적 풍요, 자유 민주주의의 확장으로 의사 표현이 쉬워졌다. 개성을 나타낼 기반이 된 것이다. 다만 즐김과 소비는 기존 소비문화에 의존하고 있다. 새로운 문화적 탈출보다 기존의 소비 문화에 기생하면서 자기 표현, 집단적 동질감을 구성하려고 한다.

2) 개인 중심

둘째, 개인 중심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 친구들을 통해 안정적 정

서를 유지하였다. 가정은 나름대로 따스했다. 울타리였다. 현재의 부모는 스스로 민주 제도와 억압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고, 아이들을 이해할 역량도 없다. 친구들도 즐길 때뿐이다. 많은 만남과 교환 속에서도 깊은 이야기가 없다.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것으로 남겨진다. 철저한 단절이다. 단절된 만큼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신을 더욱 드러내서 이해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발악을 하는 것이다. 사실 아이들의 드러냄을 바라보면 결사적이다. 개인을 드러내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악순환으로, 단절은 더욱 심해진다. 숨겨진 학생의 내면은 더욱 고독한 법이다.

3) 배타적 문화

셋째, 청소년들의 배타적 문화 성격이다. 해방구이다. 또래 집단이 형성한 세상과 동떨어진 환상의 섬이다. 몽상적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학생들은 스스로 높아진 자주성과 표현력을 드러낸 만큼 기성 세대에게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자신들만 놓고 즐기려는 문화를 만들었다. 자기만의 드러냄과 즐거움으로 기성세대를 거부한다. 배타성은 또래 집단들 사이에도 발생한다. 스스로 비슷한 분위기를 사람들만을 선호한다. 과거는 동질의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삶에 안정성을 보장했다. 그러나 현 사회는 생활 통합력이 없다. 개인들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의사 소통 구조는 아직 실험 단계이다. 유교 등 구질서는 무너지면서 개인이 강조되고 있지만 개인을 연결하는 망은 실험 단계이다. 능동적 소속감이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청소년들은 보호막 없이 세상으로 던져지고 있다. 때문에 지금의 청소년은 사회성이라는 유적(類的) 본질을 집단 동질성으로 실현한 것이다. 소외의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달힌 관계는 공허하다. 순간적으로 동질감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결국 개인은 개인으로 남는다. 달힌 관계의 집단은 근본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없다. 구성원 사이에, 서로의 삶에 대한 관심과 개입 의사가 적다. 집단을 유지하는 힘은 순간적 동질감을 위한 강한 흥미와 쾌락일 전부이다. 강한 쾌락 후 다시 공허해지고, 다시 보다 강한 자극을 원하고, 이런 악순환 속에 사람은 무너진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에 기초한 통합력만이 해결 수 있다.

넷째, 독자 세력화이다. 현재 신세대는 다르다. 문화 세력 일부로 등장했다. 완전히 다른 구역을 만들었다. 과거 우리는 뱀새나는 자취방에서 막걸리에 썬 김치를 먹었다. 흡연과 음주 등은 숨어서 행하였다. 작은 쪼가리 이불 속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겨울 밤을 세워 이야기 했다. 세상과 꿈을... 그러다 지치면 통기타 하나로 노래하면서 삶을 만들었다. 그렇게 숨어서 조용히 청춘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당당히 자기를 드러낸다. 새로운 문화적 형식을 사회적 힘을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과거 은밀하고 개별적인 청소년기의 경험은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변화했다. 집단화하면 사회적 힘이 생긴다. 안방 TV를 점령한 오락물은 신세대의 힘을 보여 준다. 그들은 소비도 주도한다. 유행을 창출한다. 백화점에서 청소년 중심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성공한 것을 보면 이들의 힘을 알 수 있다. '서태지'에서 '여고괴담' 까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당당히 주장한다. 문화 중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 집단화와 공개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기성세대가 나름대로 사회적 모범을 제시하고 집단적 대화를 전개하면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아직 청소년의 문화적 역량은 극히 미숙하다. 선배들은 유산다운 유산을 남기지 못했다. 남겨 준 것들은 군사 문화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물질만능주의 사고와 허무감만을 주었다.

청소년들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마 이런 저런 시행착오 속에 기성 세대의 잘못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것

이다. 기성 세대의 무기력을 뚫고 새로운 지평을 형성할 것이다. 다만 그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많은 상처를 입을 것이다. 기성 세대의 철저하지 못한 변화 덕분에…….

청소년의 지도가 불가능하다. 도덕의 건강함이 우리에게 없다. 고비를 넘지 못했다. 우리 세대 타협의 산물이 우리 청소년이다.

2. 가출에 대한 연구

1) 삶의 일부인 가출

가출은 삶의 일부이다. 가출을 탈출이라 미화할 필요가 없다. 학생들의 삶을 외면할 가능성 있다. 학생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유발할 뿐이다.

가출은 삶이다. 밀려서 살아갈 뿐이다. 청소년들을 우리가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탈출은 신념과 의지적 행동이다. 단절이다. 가출하는 아이들은 조금의 틈도 없이 밀려오는 세상에 밀려서 가출을 하는 것이다. 의지적 표현이 아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학생과 대화를 하면 가출에 원인을 발견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그저 싫어서 가출한다. “친구와 노는 것이 재미있다.”, “옷을 사고 싶다.” 등의 이유로 가출한다. 기성 세대와 같은 무기력한 모습이다.

그렇다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물과 공기와 같이 너무 일상화되어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동전의 뒷면을 보아야 한다. 한치의 틈도 없이 아이들을 밀어내는 힘을 말이다. 너무 거대하고 일반적이라 발견하지 못한 이유를 발견해야 한다. 학생들을 무기력과 물질 속으로 몰아 넣은 이유를 말이다. 물질 문명, 늘어나는 빈부의 격차, 무너진 도덕성, 성적 위주의 학교, 유혹하는 저질 성인 문화, 가족의 위기 등등 전 사회가 억압하는 사회적 질서에 주

목해야 한다. 구질서는 대부분(부모의 요구, 학교의 규칙 등)이 청소년 내면에서 규제력을 상실했다. 약간 남은 사회적 합의가 미안함을 줄 뿐이다. 새로운 자발적 규제력이 필요하다.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선 약해진 사회적 규범을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의 완결로 기성 세대의 정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가출은 꿈이다. 동경이다. 밀려오는 힘에 노출됨을, 불만을 속으로 해소하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밀려 떠나지도 못하고 다른 학생을 밀어내는 힘의 일부로 되어 버린 학생도 있다. 이런 아이들은 자기 기반을 상실하여 고독이 더 심하다. 가출 학생보다 범생이가 더욱 고독할 수 있다. 가출이 모든 학생에게 일반화된 것은 아니다. 밀어내는 힘의 강도가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일부 학생은 다른 학생을 밀어내는 힘이 되는 경우도 있다.

2) 빈곤한 학생이 가출이 많다.

가출 학생은 특별한 차이가 있다. 계층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부모가 ‘공돌이’ 계통인 경우가 많다. 극빈한 가정이다. 가출의 상당수 원인이 돈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좋은 옷들이 얼마나 큰 힘을 형성하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런 학생은 독자적 문화를 형성하지 못하고 기성의 물질 중심을 답습하고 있다. 물질이 인격이다. 메이커가 개성이다. 돈을 처발라야 개인은 존엄해지는 것이다. 멋이 최고의 가치이다. 멋있는 아이들이 최고이다. 돈의 필요성에 밀린 청소년은 돈을 위해 가출을 한다. 가난한 학생의 가출이 심하다.

이런 현상은 계급 의식과 자포자기를 가르친다. 가족의 경제력과 현실을 배운다. 학교를 졸업해도 별 불일 없는 삶을 발견한다. 결국 잃어버릴 것이 없는 학생은 주저없이 가정을 떠난다.

학생 생활에서 계급 성격이 절망으로 드러난다. 졸부의 횡포로 절망은 늘어간다. 가난한 학생들의 아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준 상처를 같이 아파하자. '범생이'와 '영구'라는 용어가 존재하는 사회를 생각하기 바란다.

3) 단순성 가출과 의도성 가출

단순성 가출과 의도성 가출을 구분한다면, 기간으로 나누기보다 동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가출은 절망으로 가출한 학생, 자기 문화의 일체감을 위해서, 파괴된 가정 때문 등등 차이가 있다.

의도성 가출은 저항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부도덕한 부모에 대한 저항, 소외, 차별에 대한 저항을 말해야 한다. 유흥업소에 취업해 오랫동안 있었다고 의도성 가출로, 며칠 안 되는 기간은 단순성 가출로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학생들은 부도덕에 민감하다. 성으로 문란한 아이들 대부분의 부모는 그런 모습이다. 그 속에는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강요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있다. 이런 심리적 기제가 가출의 뚜렷한 원인이 된 학생을 의도성 가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파괴된 가정, 빈곤 등 사회 구조 문제, 학교 부적응의 이유로 생존에 떠밀리는 학생을 단순성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4) 가출은 발악이다

가출은 발악이다. 낭만적으로, 문제 해결의 자구적 의지로 볼 수 없다. 가출은 의지적 탈출보다 물려서 도망가는 성격이 강하다. 의지적 탈출 운운하는 것은 너무 한가한 소리이다.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가출을 보면서 의지적 탈출을 생각하는가 물어보라. 아마 대부분 교사들은 절박함을 말할 것이다. 탈출도 회피도 아닌 삶의 일부이다. 가출은 삶의 일부이다. 물질이건 도덕이건 절박해서, 살기 위

한 방법이다. 절대로 가출은 고상하지 않다.

입시지옥, 소비문화가 생명줄을 잡고 가출을 부채질하고 있다. 소비가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 아이들 개성은 상품의 상호로 대변된다. 우리가 생활력까지 변화를 완성하여 인본주의적 가치를 설립하였다면 입시지옥과 상품의 범람은 없을 것이다. 학생들을 발악으로 몰아가는 우리의 책임을 먼저 생각하자.

공부를 해도 별 가능성이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 가출한다. 성적지상주의가 삶의 기백을 무너뜨린 것이다. 탈출 운운하기 전에 우리 책임을 생각하자.

3. 교사들이여 반성하자

과거에 우리 모습은 동질성이 있었다. 세로운 세대는 다르다. 그들은 개성을 추구한다. 물론 신세대 내부에도 다양한 편차가 있다. 각각 다른 모습을 추구한다. 다양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개개인의 다양성들이 성숙하지 못했다. 개인들의 실존 근거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다양성이 문화로 성숙하지 못한 것이다. 다양성은 오로지 물질과 외모를 통한 감각적 양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청소년의 문화적 특징은 사회적 통합이 무너진 후 보신주의와 자본이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기성 문화의 연장선에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문화양식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내면은 어른들의 무기력을 닮아가고 있다. 개인들은 서로 단절되어 있고, 대화 등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구조도 없다. 떠밀려가고 있다. 스스로 변화하기 싫어 내용을 변화시키지 못한 책임이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른들이 지금이라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형식적 권위주의와 위선적인 영

숙주의을 거부하고 훈계조의 언어를 포기해야 한다. 스스로 부조리를 반성하고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 공간을 학생에게 주어야 한다.

우리가 만약 이런 모습을 지녔다면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눈치를 보았을 것이다.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였을 것이다. 도덕적 우위를 통해서 말이다. 그리고 또한, 청소년 문화를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소비문화가 건전했다면 아이들의 '가출=유흥업소' 공식을 무력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이들의 다양성이 물질보다 성숙한 내면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개방적이고 사회 통합적인 성격을 지닐 것이다. 개성을 창조하였을 것이다. 그들 놀이 집단의 폐쇄성을 말하기보다 기성 세대의 합의되지 못한 가치관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문화적 관습을 바탕으로한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시대 속에 변화된다. 따라서 교육하는 사람 등 새로운 문화에 접촉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문화적 가치 중에 시대 상황을 기반으로 한 부분은 회의를 해야 한다. 신문화에 구가치관을 강요하면 대화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문화적 회의를 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다. 아직도 90년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를 바로 잡기 힘들어하고 있다. 자신을 돌아보고 문화를 합의하기 위해 토론하기보다 방어하기 급급하다. 어쩔 수 없이 대화 능력이 거의 없다. 반성하고 우리 생활 깊숙히 들어온 권위, 침묵, 패배, 강요를 버리고 자유로운 개인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 사랑이다.

문화의 격차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사회 통합 구조의 확립에 있다. 다양성을 확립할 개인 존중과 민주적 의사 구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통합 구조보다 불평불만과 자포자기 감정이 우선하고 있다. 아이들 문화의 이질감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반성이 필요하다. 건전한 문화 통합력을 상실한 아이들은 사회적

로 검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비행으로 발전하고 있다.

성인들은 문화 회의를 통한 상호 존중과 자기 시대의 가치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가출을 막는 가장 중요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런 철저한 반성없는 모든 대책은 이유를 불문하고 자기 책임 회피이다.

학생들 입장에서 가출을 생각해보았다. 물론 무리가 많은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출은 객관성보다 뛰어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우리 자세를 반성하면서 말이다. 우리는 학자이기보다 교사이고 현장이다. 아이들 속에서 아이들 눈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성 세대는 다음 세대를 지도할 명분이 없었고, 신세대는 스스로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당연히 방향은 증폭되었다. 스스로 사회적 통합을 만들 수는 없었다.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힘들었다. 과거의 권위주의에서 탈피, 획일화되고 일률적인 문화에서 탈피하여 다양성을 추구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물질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지 않는다. 완벽성이 강조되는 청소년기에는 더욱 그렇다. 학생들은 참으로 힘들다. 자아 여행은 모험이 되었다. 사회적 기준이 무너진 상태에서 나름대로 정립해야 한다. 답답한 권위적 세상과, 한편으로 강조되는 진리, 그리고 날마다 일그러진 세상을 대하는 청소년의 삶은 무전 여행이 되었다. 상처 투성이로 끝내야 하는 시기이다.

아이들은 돌아갈 곳도 없는 갈등 구조에서 조금씩 일어서고 있다. 아주 조금씩 기성 세대를 욕하면서 일어서고 있다.

무엇?

그리고 그 속에 희망이 있다.

- 학생의 자치를 생각하면서

두레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광주 치평중 박춘애

교사의 학교생활 영역을 분류한다면, 하나는 교수 활동의 영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활 지도의 영역일 것이다. 그 중에서 현재 진행되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교사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실현시켜 갈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학급운영을 통한 영역일 것이다.

취미를 중심으로 하는 학급 운영은 많은 학생들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현재의 여건에서 고전적인 학급운영의 방법보다 나름대로 공동체 삶을 실현하는 소중한 결실을 낳고 있다고 생각된다.

1. 취미별 두레란?

두레라는 명칭은 우리가 흔히 쓰는 모둠의 형태와 같은 것으로 관심 있고 흥미 있는 분야가 같은 학생들로 구성한다. 특별히 만들고 싶은 영역의 두레를 어떤 이가 먼저 제안하면 그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두레를 구성한다.

두레가 구성되면 모든 학급의 일은 두레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아침 조회, 아침에 실시하는 자율학습의 운영, 청소, 학급의 재정관리와 비품·학급문고 관리, 학교와 학급의 행사 등 모든 영역의 일들이 이 두레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두레에는 두레장이 있으며 이 두레장을 중심으로 두레에 관련한 모든 일을 논의하여 두레별로 가지고 있는 월별 계획서를 작성한다.

2. 두레로 운영하는 학급 운영

1) 함께 살아가기의 소중함 알기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고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가 힘을 모을 때 일의 성과는 더 좋으며 친구의 어려움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한 해로움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한 예로 우리 반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습 두레가 있었는데 그 중의 한 아이가 음악 실기평가에서 늘 점수를 받지 못하여 울상이었다. 이 두레에서 반 아이들의 학습활동을 돕기 위하여 각종 학습자료를 만들어 주자 노래두레에서 그 아이의 노래 지도를 직접 하겠다고 나서서 결국 그 아이는 만점은 아니었지만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가창시험이 있던 날 함께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2) 학교생활에 자부심 갖기

두레활동을 통하여 학급의 자그마한 일이라도 맡게 하고 스스로 활동을 하게 하여 반에 소속감을 갖게 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게 한다.

우리 반에는 정말 성적도 최하위권이고 자신의 의사표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가 도서두레에서 독서록을 검사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자신의 사인을 친구들 독서록에 해주는 재미로 학교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두레일기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3) 나의 소중함 깨닫기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이며 내가 학급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한다.

4) 이기적인 나를 줄여나가고 더불어 사는 나로 다시 태어나기
나의 이익, 나의 공부보다는 모두의 이익이 소중함을 알고 나 혼자
자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에 있는지 깨닫게 한다.

3. 구체적인 운영방법

■ 학급운영위원회

반장, 부반장, 대의원 2명, 그리고 각 두레의 두레장이 참여하여
학급의 일을 1차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합의가 필요한
일들은 전체의 의결을 거친다.

■ 두레활동

학생들의 취미를 중심으로 8개의 두레를 구성하고 두레장을 중심
으로 학급 전반의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아침 자율학습, 청소, 학급
의 업무분담, 학습활동 등).

• 두레일기

두레별로 한권의 일기장을 준비하고 두레원이 돌아가며 일기를 쓰
고 교사가 답을 해 준다. 학생 개인의 고민과 관심거리에 대해 알
수 있고 교사의 의도를 답을 통해 수시로 전달할 수 있다. 단 두레
원 모두에게 공개된다는 것을 의식하여 솔직한 자기의견을 제시하
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일일훈화

아이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문제, 나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반영해
야겠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해 자료나 노래 구호등을 이용하여

제시한다.

4. 두레 구성에서 유의할 몇 가지

- ① 학기초에 왜 두레를 구성하려고 하는지 담임의 학급운영관과 함께 아이들
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자.
 - 모든 학급의 일은 두레장을 중심으로 두레에서 해결한다는 것을
수시로 아이들에게 인식시키고, 이것이 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인의식과 우리의 삶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인식할 때 가능
하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타율적으로 살아가는 학
교 생활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가능함을 강
조하고 그런 의미에서 두레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하여
이야기한다.
- ② 두레를 구성할 때의 유의점.
 - 지나치게 활동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배
려한다. 두레구성에서 이 점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지나
치게 뛰어난 아이들로 구성된 두레가 생기면 그렇지 못한 두레는
상대적인 열등감으로 활동이 위축되어 반 전체에는 더 안 좋은 영
향을 끼친다. 상담과 아이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지도력과 활동
력을 겸비한 아이들이 골고루 배치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두레가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정한다. 두레 구성이 완
결되어 명단이 발표된 이후에 문제가 있다 하여 구성원을 조정하
면 원칙이 흐려져서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 두레구성은 교사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겠다. 다만 취미

별 구성의 장점은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두레활동에 참여하여 학급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함으로써 내가 학급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좋았다.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일상 두레활동이 이루어지게 하고, 여기에 기존의 부서 체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을 배치하면 한사람 한사람이 학급에서 자그마한 일이라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발성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③ 두레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겉으로 느껴지지 않는 문제도 실제 이야기를 해 보면 아이들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오해가 쌓여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으로 두레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발생한다.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만 배려해 주어도 아이들은 자신의 문제의 핵심을 잘 지적하고 스스로 정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④ 두레활동이 저조한 두레는 성취감을 획득하도록 한다.

활동이 저조한 두레는 담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사기를 잃지 않도록 하고 작은 일거리라도 주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⑤ 두레활동 그외 학급활동으로 얻어지는 성과는 정리를 하자.

아무리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아이들에게는 몹시 소중한 것이다. 두레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작품들은 늘 나를 놀라게 하였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훨씬 더 창의적이고 기발하다는 것이다. 가끔 유지하다고 생각되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성과를 정리해 나감으로써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성취의 기쁨을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

우리 반은 두개의 책꽂이가 있는데, 하나는 각 두레별 파일8개를 꽂아두는 것이고 하나는 각 자의 독서록 49권을 꽂아두는 것이다. 남은 칸은 우리 반의 공동 자료를 꽂아 놓고 수시로 이용한다. 두레 파일에는 두레활동에서 얻어진 작품들이 정리되어 있고 독서록은 담당자가 수시로 점검한다. 그리고 학급의 행사 때는 가능하면 비디오로 그 모습을 담아둔다. 이러한 자료가 모아져 학년을 마무리할 때 학급문집이나 한편의 다큐멘터리로 꾸며진다면 더 없이 좋겠다. 두레활동의 중간 중간에 우리의 이런 노력이 책이나 영상으로 엮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더 열심히 성의 있게 참여하게 하는 효과도 있었다.

5. 그래도 학급운영은 계속된다

우리가 처해있는 교육 여건이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교육관을 실현하는데 많은 제약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이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오늘도 학급 운영은 계속되고 있다.

학급운영의 기본은 사랑!!

- 늘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사고로 이해하고 그들의 내면으로 접근한다.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교사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요즘 아이들이 달라졌다”고 우리는 무수한 말들로 그들을 비난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정작 나는 아무 대책도 없이 혼돈의 강에서 허우적대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그러한 아이들과 함께 학급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바탕이 되는 것은 사

람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요즘 아이들에게 우리 같이 힘없는 교사의 말이 어디 먹히거나 하겠느냐고 우리는 늘상 이야기하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래도 담임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교사의 진정한 뜻이 제대로 전달되면 숨이 물을 빨아먹듯 쉽게 동화되어 오리라는 기대가 우리를 오늘도 교단에서게 한다. 아이들의 순수한 감성을 믿고 접근하자.

시간이 나면 늘 교실에서 아이들과 수다 떨고 이야기 듣고 놀다 보면 의외의 정보도 얻게 되고 아이들의 진짜 모습을 그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 교사들의 잡무가 지금보다 줄어든다면 의욕적으로 학급운동을 하고자 하는 많은 교사들에게 크나 큰 힘이 될텐데 수업이 없는 시간은 늘상 교무실에 머물러도 끝이 없는 잡무로 인하여(실상 담임을 맡으면 잡무는 더 늘어난다) 우리가 교실에서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교육개혁은 우리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미리 세워지는 계획 속에서 알찬 학급운동은 가능하다.

미리 세워지는 계획이 없이 성과를 얻기는 힘들다. 작년이나 지금이나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풍부한 학급운동의 경험과 실제로 그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빨리, 더 다각도에서 주어졌더라면 하는 것이다. 학급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그 전 방향 중에는 그에 대한 구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 구조는 많은 것을 방해한다.(담임 배정의 시기, 학교간 이동의 시기, 학년의 배정 등)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알찬 학급운동은 교육여건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위에 제기한 문제들도 결국은 우리가 처한 교육현실을 비켜갈 수

는 없다. 한 예로 학생 수의 문제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크나 큰 요인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우리 반의 경우 6명씩 8개의 두레로 구성하였는데, 이 8개의 두레를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다. 교육재정이 확보되어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든다면 학급운영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또 한 가지는 아침에 이루어지는 두레활동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지 성적을 제일이라고 믿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 당사자와 동료교사는 이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인지 늘 고민이 되었다. 성적위주의 학교 교육이 지속되는 한 공동체성이라는 단어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고, 담임의 학급운영관을 살릴 수 있는 창의적인 학급 운영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만큼의 고민과 그것을 헤쳐 나가기 위한 의지와 지속적인 대안의 모색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교사가 가지고 있는 학급운동의 원칙이 의도적으로 반영되도록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곳곳에 교사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인 개입이 항상 필요하다. 아이들의 계획은 때로는 기발하고 참신성을 담고 있는 것이 많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경우 또한 많이 있다. 여기에 교사가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교사의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보여주기식의 학급 운동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관된 목표를 지니되 아이들의 내면의 변화를 중시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공동체 삶의 소중함과 그런 의미에서 학급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깨달아가게 한다. 그러나 아무리 담임이 강조하여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담임에게서 그러한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아이들의 내면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6.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공동체의 실현을 위하여

학급은 하나의 소우주이다. 이 소우주 안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몸담게 될 또 다른 사회의 준비를 하고 경험을 한다. 나 혼자서 살아 가는 삶보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왜 소중한지 이 소우주 안에서 깨닫도록 해 주는 것은 다른 어떤 교육의 목표보다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교사가 학급 운영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고자 할 때 정작 교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이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라거나 열악한 교육현실로 인해 빚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를 쓰고 매달리는 것은 이 아이들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기 때문 아닐까?



학생 자율 조희 · 종례 운영을 통한 학급 자치와 그 가능성

경기 광명중 주희선

중1 학급운영, 무엇을 중심으로 잡을 것인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발표를 잘 한다. 조금 서툴고(때론 유치하고) 시끄럽긴 하지만 중1 아이들은 자기 의견을 스스럼없이 말할 줄 안다.

그런 아이들이 1학기가 지나면서 점점 발표하지 않고, 손들지 않고 학교 안에서 자기의 삶을 만들기 위해 이런저런 이야길 하지 않는다.

“고등학교는 학급회의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초등학교 학급회의 시간은 싸움까지 일어날 정도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공동의 규칙을 세우고 한다는데, 그보다 지적 수준이 높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학급회의를 할 줄 모른다.

모둠을 통한 토론 집단 만들기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을 맡은 나는 우리 아이들의 발표력과 자치능력을 키워주는(보전하는) 학급운영을 하기로 했다. 토론과 회의를 활발히 하기 위하여 모둠은 토론과 회의에 참여하는 소집단의 역할

을 중심으로 했으며, 학급의 일상적인 생활(학급회의, 조회, 종례)을 학급 자치를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하고자 했다.

조례(朝禮)라고 안하고 조회(朝會)라고 하는 이유

보통 조회에서는 아이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담임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사항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이들이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아이들도 그래야 할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 실제로 나도 작년에는 별다르지 않게 조회를 운영했었다.

지난 여름 어떤 학급운영 연수에서 조회와 종례에 관한 이야기 여러 선생님들과 나눈 적이 있다.

왜, 조례(朝禮)라고 안하고 조회(朝會)라고 하는가?

사소한 말장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 이 둘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조회(朝會)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의 시간이다. 당연히 회의의 주체는 아이들이어야 한다.

스스로 운영하는 친밀감을 주는 조회!

조회는 말 그대로 회의이다. 따라서 조회도 일정한 순서에 의하여 적절한 조회의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담임의 전달사항이나 챙겨야 할 무수히 많은 가정통신문, 각종의 걷는 것 등은 미리 담당자를 정하여 해결한다.

또, 조회노트를 만들어 조회에서 이야기되는 내용과 하루 학급에

서 일어났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조회노트는 교실 앞에 걸어놓고 학년말 문집을 만들 때도 활용하기로 했다.

학생 사회자가 앞으로 나와 조회의 시작을 알리면 아이들은 시끄러워지기 시작한다. 사회는 원하는 모둠에서 맡기로 하고 모둠원들이 순서를 정해서 한다.

■ 서로 인사하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사를 하고, 학년초에는 짝과 껌안기를 많이 했는데 가장 꼭 껌안는 사람을 선정해서 사진 찍어 주고 포토재닉상을 주기도 했다.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임으로 인사하기를 하는 사회자도 있었다. 아침 인사는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기 위하여 자기자신과 옆의 친구에게 다짐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일이며, 당연히 매일 빠짐없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 전하는 말

각 담당자들이 전달 사항을 말하고 기타 건의사항이나 몇 가지 학급의 문제를 말한다. 전달사항은 내용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정통신문 내용, 시도 때도 없이 걸어야 할 것도 모두 학생 담당자들이 하도록 했다. 또, 한 모둠에서 그날의 전달사항을 교실 앞 칠판에 종례시간마다 적어 놓고 알림판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전달사항의 내용은 교실 생활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이야기나 나온다. 특별히 반 모두가 이야기할 것이 있을 땐, 모둠별로 간단히 토론한 후 발표하게 했고,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교실에서 지켜야할 규칙으로 했다.

■ 조회 주제 발표

그날 준비된 조회의 주된 내용으로 처음 3, 4월은 '자기소개와 좋은 말(명언) 하기'를 주제로 정하고 번호 순서대로 매일 2~3명씩 나와서 발표했는데 아이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는 아이들도 있어 아침 조회가 참으로 즐거웠다. 조회 진행을 맡은 모둠이 종례 때마다 다음 발표자를 말하도록 하여 미리 조회 발표를 준비하도록 권했다.

5월부터는 전체 일곱 모둠에서 한 모둠은 사회를 보고 다른 여섯 모둠이 각각 요일을 정하여 조회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했다. 미리 4월말 학급회의 시간에 각 모둠별로 계획서를 나눠주고 모듬회의를 통해 조회 주제를 미리 정하도록 했다. 조회 주제는 내가 선생님이 된다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앞으로 3일만 살 수 있다면, 짝얼굴 그리기, 단오날부적 만들기, 요요대회 등 모듬회의에서 다양한 주제를 만들어냈다.

아침 자율학습 전 조회 주제를 칠판에 적고 조회할 때 주제발표 시간이 되면 담당 모둠에서 나와 각 모듬별로 한 명씩 발표하게 하고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고 마친다(주제에 대해 짧고 간단하게 생각한 것을 말한다).

■ 회의 마무리

학생 사회자가 그날 이야기된 전달사항과 학급의 주요 소식 등을 전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모든 아이들의 박수로 아침 조회는 끝이 난다.

아침조회 운영은 매 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모듬장회의를 통해 평가하고 조금씩 바뀌어가며 운영한다.

명상으로 마무리하는 하루 - 종례

6교시가 끝나면 한 아이가 칠판에 '명상준비' 쓰고 아이들은 명상 자세를 한다. 매주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하루 동안의 나를 되돌아 보고 조용히 생각하기 위해 3분 정도 명상하고 하루를 반성한다. 전달사항이 있는 사람은 발표하고 담임도 잔소리를 곁들인 당부 말을 하고 나면 인사를 한 후 집중의 박수(조회와 종례가 시끄러워질 무렵 우연히 종례시간에 아이들이 만든 박수)를 끝으로 하루 학교생활을 마친다. 5월 마지막 주부터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노래를 각 모듬에서 한 명씩 수업시간 제일 떠든 아이의 이름을 중간 중간에 외치며 부르고 끝낸다.

우리 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반의 아침 조회는 담임이 없어도 항상 제시간에 이루어진다. 굳이 담임선생님이 꼭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조회를 아이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아이들은 조회에 흥미를 느낀다. 때론 너무 시끄러워 사회 보는 아이와 떠든 아이가 싸우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싸움을 조정할 줄 알게 됐다. 사회를 맡으며 선생님의 어려움도 알게 되고, 조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일을 준비해서 치르는 방법도 배운다. 주제 발표를 하면서 발표력도 생기고 상상력도 풍부해진다고 한다.

처음 한 달 조회를 운영하고 사회를 맡았던 모듬이 아이들이 너무 떠들어 힘들었다고 하면서 조회 사회를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모두가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하는 의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원하는 모듬에서 하기로 하고, 마

지막 조회 사회를 보는 날 아침발표는 사회 모둠에서 '조회 때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라는 공트를 준비하고 조회에 성실했던 친구들을 뽑아 샤프심을 선물하기도 했다. 조회 사회자를 경험하면서 아이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진행능력과 발표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법도 알게 되어 남을 존중하는 법도 배운다.

회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5월을 보내며 항상 정숙해야 할 학교에서 시끄러운 아이들을 상대로 담임인 내가 많이 지쳐 있었다. 좀처럼 조용해지지 않는 아이들을 보며 아이들도 미워지기 시작하고 조회 진행도 성의 없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고 짜증이 날 무렵, 간단한 질문지를 만들어서 조회·종례 평가를 했다. 의외로 아이들은 조회, 종례에 대해 학급자치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조회시간을 즐거워하고 학급의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기에 떠들지만 직접 운영하는 조회를 아이들은 나름대로 잘 꾸리고 있었다. 담임의 조급한 마음이 즐거운 조회를 부담스러운 조회로 만들지 않았나 반성한다.

첫 번째 모둠장회의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모둠장회의를 하면서 너무나 좋아진 아이들을 만났다. 어느새 모둠장 아이들은 회의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참고 1 우리반 아이들의 조회·종례 평가

- 생활의 어려운 점들을 토의할 수 있다.
- 잃어버린 물건을 반 친구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고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다.
- 학급에 관한 일을 알 수 있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다.

- 모두가 하나되어 움직이는 것 같다. 협동심에 도움을 준다.
- 스스로 해서 좋고 마음이 가뿐하다.
- 우리가 훗날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서로 마음이 맞아서 의견 충돌도 없고 재미있고 즐겁다.
- 사회자의 진행준비가 불충분하므로 해당 모둠의 주제 말고 사회자가 준비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명상은 정신 집중이 잘되고 조회 내용은 자신을 상상하게 만들어 상상력이 풍부해진다.
- 조회는 참 좋다(내용 면에서). 그러나 집중하지 않고 숙제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다.
- 선생님 마음대로가 아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우리 마음에 더 들고 불만도 적다.
- 조회는 하루의 일을 즐겁게 시작할 수 있다.
- 건성건성으로 하는 것 같아서 별로인 것 같다.
-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친밀감을 주는 것 같다.
- 명상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마음가짐이 잘 정리되기 때문에.
-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한다.
- 책임감을 길러 주고 아이들끼리 진행을 해서 친밀감 있다.
- 아이들이 운영하여 힘들지만 말씀이나 발표력이 늘 수 있다.
- 다른 반과 달라 개성적이고 독창적이어서 좋고 전달하는 말도 하여서 좋다.
- 아이들과 함께 조회를 하니 친근감이 들고 친구가 많이 생겨서 화목한 학급이 된다.
- 우리 반의 개성을 살려 조회를 해서 좋은 것 같고, 조회시간에 좀 더 조용히 하면 좋겠다.
- 시끄럽게 떠드는 주인은 필요 없다.

-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학급활동이 수월해진다.
- 선생님이 안 계셔도 활동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우리모두 기억하기 1:(임영규) 화합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협동·화합·이해가 잘 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협동과 화합으로 인하여 더욱더 친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모두 기억하기 2:(최지민) 명상의 시간에 조용히 하기를 바라기보다 직접 나서서 조용히 하자!!
이것으로 아이들의 평가는... 끝!

참고 2 조회·종례 노트

1998년 월 일 요일
우리반 어제보다 나은 오늘!!

발표모듬 : _____ 사회자 : _____ 기록자 : _____

조회내용 (주제) :
 •건전지 책방:
 •순금 :
 •백수클럽 :
 •선풍기 :
 •맑은공기 :
 •누룽지 :
 •I.M.F :

오늘의 선생님 :
이유 :

함께 생각하기 :
전달사항 및 건의 사항 :

오늘 있었던 일 :

오늘의 가장 좋은 친구 : _____ 오늘의 부족한 친구 : _____
이유 : _____ 이유 : _____

()의 칼럼